

해양바이오 융합제품 산업화

인천, 3년간 중기 프로젝트 수행 ... 해조류 원료물질 대량 생산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바이오 에너지와 융합제품을 산업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추진해온 해양바이오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지역 연고 육성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18억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3억6000만원과 민간자본 11억원 등 총 3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저탄소-소비 제로의 순환형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산업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로 7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3년에 걸친 중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옹진군 도서지역에 육상기원 해조류 연못을 조성해 원료물질을 대량 생산하고, 연안 청정지역에는 해상 양식시설과 육상용 수직농장(Vertical Farm)을 만들 예정이다.

인천시는 2009년에도 인하대와 손잡고 2018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해양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 국토해양부 지원사업으로 뽑히면서 국비 490억원을 포함해 총 50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18>